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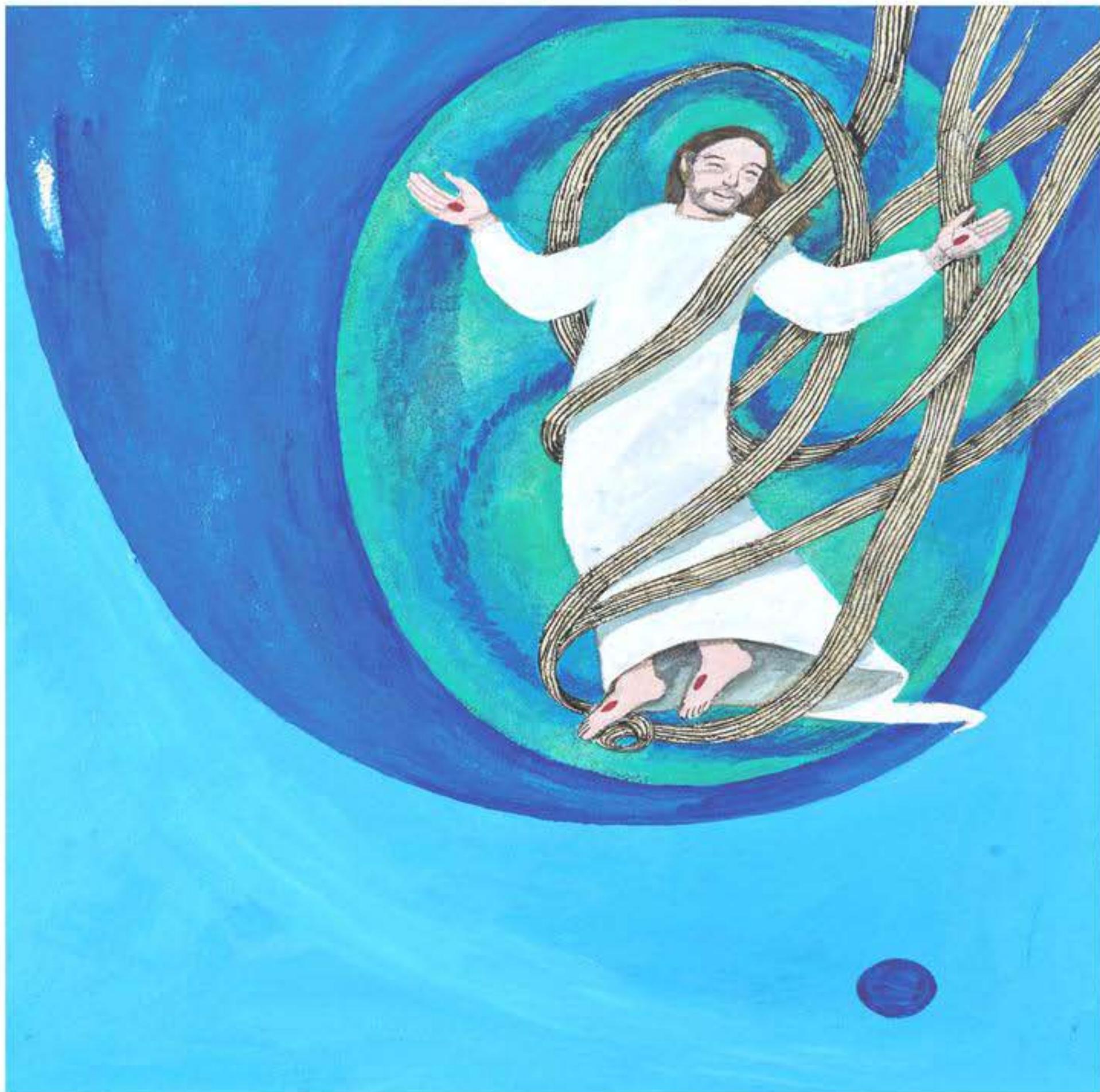


# 성삼 한인 성당

##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5월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5월 16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마르 16,15-20 Ⓢ)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승천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주님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지켜본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알았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들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에페 4,10)



## 복음을 나누기

### 시작 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15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마르 16,20)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을 나누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4개의 복음서를 그냥 이웃에게 읽으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쁨을 살아내야 하고, 기쁜 만큼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삶,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삶 안에서 체험하고, 체험한 바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화이고 선교입니다.

이제는 남극과 북극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찾아 복음의 씨를 뿌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교의 사명은 남아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들,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만 가는 이들, 이젠 더 이상 하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하느님을 증거하고 알리며, 살아있는 신앙을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